

蛇神說話와 그 小說的 變異

강 철*

차례

1. 머리말
2. 사신설화의 양상
3. 소설적 변이
4. 맺음말

1. 머리말

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그럽고·피하고 싶으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존재이다. 뱀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산천이나, 인간의 주거 공간 가까이에 생존해온 동물이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은 뱀에 관하여 숭배와 기피라는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¹⁾

제주도는 뱀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지역으로 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오늘날 뱀이 퇴색하긴 했지만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 뱀을 숭배하는 관행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의 蛇神 신앙은 무속과 관련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1) 뱀이 주는 이미지는 극단적인 상이다. 긍정적 이미지로는 다산(多産), 지혜, 풍요, 업, 숭배, 비옥함 등이고, 부정적 이미지로는 간계, 교활, 원죄, 죽음, 어둠, 공포, 유혹, 기피 등이다.

되어 무속 의례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히 파고들어 있어서 고유한 생활 양식의 일부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노들날~~에도 일부 지역은 이와 관련하여 혼인에 제약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²⁾ 또한 여러 문헌에서 뱀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으며,³⁾ 관련된 설화도 많이 전승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 지역의 사신설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를 살펴 본 뒤, 이러한 소재가 소설에서는 어떻게 변이되어 나타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사신설화의 양상

(1) 기존의 연구

제주도의 사신설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30년대에 일본인 학자인

2)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제6집, 濟州島研究會, 1989, p.183.

3) “풍속에 몹시 뱀을 꺼려하여 이것을 신이라 해서 받들어서 이것을 보면 곧 술로 주문을 외우며 거룩한 신으로 받들고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俗甚忌蛇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金淨, <濟州風土錄>)

“지금 사신을 숭봉하는 풍속이 옛날에 비길만큼 심하지는 않다.”(今則崇奉蛇神之風 不此昔時尤甚)(金尙憲, <南槎錄>)

“이 지방에는 뱀, 독사, 지네가 많은데 만약 회색 뱀을 보면 차귀의 신이라 하여 금하여 죽이지 않는다.”(地多蛇 蜈蚣 若見炭色蛇 則以爲遮歸之神 禁不殺)(李元鎮, <耽羅志>)

“대정 산방산 길가에 광정당이라는 음사가 있어 여기를 지날 때 하마하지 않으면 말이 다리를 절었다. 이형상 목사가 순행하여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속이 하마하도록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는데 과연 말이 다리를 절었다. 이형상이 손수 그 땅에 이르러 무당으로 하여금 말을 죽여 제사를 지내며 뱀이 나타나기를 빌었는데 요사스런 구렁이가 나타나서 사명기간을 물어 뜯었다. 이 구렁이를 죽이고 그당을 불살라 버리니 이때부터 음사가 없어졌다.”(大靜 山房山路邊 有淫祠曰廣靜堂 過者不下馬則馬蹇 李衡祥 巡行至此 吏白下馬不聽馬果蹇 衡祥親到其堂 使巫刑馬以祭求見其神 妖蟒出現 毒嚙司命旗竿 遂軒之燒其堂 自此淫祠遂絕)(金錫翼, <耽羅紀年>)

아끼바 다까시(秋葉 隆)에 의해 이루어졌다.⁴⁾ 이후 진성기는 蛇神들의 기원을 당신화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재래신과 외래신으로 구분하고 있다.⁵⁾ 남양 등지에서 온 사신의 경우로 다음과 같은 설화를 예시하고 있다.

옛날 범성이라는 한 목동이 바닷가로 소풍을 갔다가 어떤 대나무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은이 들었나 싶어 열어 보았다. 그러나 그속에는 뜻밖에도 새빨간 구렁이 뱀이 들어 있었다. 깜짝 놀란 범성은 과연 잘못했습니까라고 빌고, 큰절을 하며 편안한 곳으로 모셔다가 본향당신으로 위하게 되었다. 뱀신이 할아버지로 인격화되어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⁶⁾

뱀신이 대나무상자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대나무가 남양열대에서 바닷물에 떠밀려 온 것으로 추측하여 남양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초점은 나무상자든 쇠상자든 상자에 실려 물을 따라 흘러 왔다는 것에 맞춰져야 하고 이러한 예는 三姓神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신신앙은 인도의 코브라 신앙을 제외하고는 예를 찾기 힘들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남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 4) 아끼바는 토산당 신화를 다루며 蛇神의 유래를 밝히면서 토산리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풍습과 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고종달설화>에서 보이는 '차귀섬'은 본래 '蛇鬼' 신앙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도 주민의 생활을 산촌과 해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토산, 차귀약 등 산기슭이나 구릉 위의 숲이 무성한 곳과 관련되는 蛇神 즉 차귀신앙은 산의 蛇鬼로써 상징되는 山村人 사회의 고문화로, 해촌의 용신과 이와 결합한 영등할망 신앙을 해촌 문화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산촌의 고문화는 일찍이 섬의 대부분에 성행 하였으나 해촌의 신문화에 의한 압박으로 그 신앙권이 좁혀져서 오늘에 이르러 겨우 섬의 동남쪽 구석에 한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뱀신앙이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 일원이 모두 이러한 '사귀신앙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5) 재래신은 김녕사굴의 괴뇌짓 사신이고, 외래신은 내도동의 본향당신인 하늘에서 내려온 사신, 두리빌레용해부인과 토산당신처럼 본토에서 건너온 사신, 전도민의 일반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유래된 칠성신, 차귀당신인 남양에서 들어온 사신으로 구분하고 있다.
- 6) 秦聖麒, 「濟州道の 뱀信仰」,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p.122.

수 있다. 문화전파론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탁명환은 사신신앙을 토산당 신화 속에서 뱀이란 성의 상징이고 무의식 속에 숨겨진 성적 욕구가 뱀이라는 신앙 대상을 통해 승화되었다고 한다. 뱀과 관련된 병은 성적욕구가 뱀으로 인해서 표현되었다고 보며, 굿을 통해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욕구가 해결되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⁷⁾ 흔히 뱀은 외적 형태와 집요한 생명력을 가진 속성으로 인해 남성 상징으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설화에서 왜구에게 쫓겨 도망치던 “아낙네의 치마가 벗겨지고 밀이 드러나고”라는 대목으로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은 비약이라 할 수 있어 타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문무병은 蛇神의 선악 양면성을 밝히면서, 사신설화를 통해 씨족 중심의 조상수호신에서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⁸⁾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신설화의 주류를 일뤼당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이기옥은 사신설화와 관련된 사신신앙을 생태인류학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⁹⁾ 인접학문의 성과가 설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주었다.

현용준은 제주도의 사신을 일반신인 칠성신, 각 마을의 당에 정좌하고 있는 마을의 수호신인 堂神, 일가와 일족에 관련된 조상신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신인 칠성신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숭상되는 신으로 보고 있다.¹⁰⁾

7) 탁명환, 「濟州 蛇神信仰에 對한 小考」,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8) 문무병, 「濟州島 蛇神信仰 研究」, 『濟州島言語民俗論叢』, 玄容駿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2.

9) 李起旭, 앞의 글, pp.184~199.

실제적이고 세속적인 요인들이, 기이하게 보이는 신앙이나 관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신앙이나 특정 관행이 어떤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긴밀히 관련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고 하고 있다. 즉 농작물을 쥐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것에서 사신신앙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쥐의 천적인 뱀에 대한 보호책이 사회적 규율로 채택되었고 끝내는 신화화함으로써 종교적인 해결책으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종성은 전국적인 사신설화의 양상을 검토하면서 사신설화를 하나의 전체로서 불가분의 전체로서 파악하고, 이들을 의미적, 형식적 동질성을 추출하여 사신설화 내의 개별 설화들의 형성의 문제를 설화유형 상호간의 계기적 측면에서 고찰했다.¹¹⁾ 이러한 점은 제주의 사신설화를 본토의 것과 비교 연구하는데 유용한 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신설화의 양상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장편의 <사신칠성본풀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신의 좌정담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옛날 장나라 장설용과 송나라 송설룡 부인은 부부가 되어 無子였다가 칠성님께 빌어 딸 하나를 얻는다.
2. 부부는 벼슬살이하는 동안 종에게 딸을 맡겨 두게 된다.
3. 딸은 부모를 찾으러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는다.
4. 딸은 중을 만나 임신을 한다.

10)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제주에 전하는 50여개의 당신화를 海神堂系, 本鄉堂系, 七日堂系, 八日堂系로 나누고 본향당신화들은 송당계, 한라산출생신계, 외래계, 기타계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뱀신앙은 八日堂(여드렛당)이다. 여드렛당은 3월, 6월, 11월의 8일에 거행되는데 제물로는 메, 쌀, 해어물, 오물떡, 과일, 채소류 등이 마련되고 단골 무당이 제의를 주관하여 거행한다. 여드렛당신의 유래는 <토산당 본풀이>에 전하고 있다. 이 신은 본래 나주 금성산에서 처녀공회를 받던 영신으로서 이곳에서 퇴치된 이후 죽은 뱀이 바둑돌로 변하여 한양으로 진상갔던 제주도의 진상객에 빙의하여 입도한 토산당에 좌정한 신이다.

11) 박종성,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무조신의 좌정담인 <사신칠성 본풀이>와 건국시조나 성씨시조의 탄생담인 <아래자> 설화에, 한 개인의 행·불행담으로 존재하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각 유형들이 근본적으로 신혼제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층위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사신과 타 신격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격의 대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문화발전 단계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뱀, 지네, 두꺼비, 용으로 대표되는 사신격의 날 것, 썩은 것, 구은 것, 끓인 것, 훈증한 것과 같은 요리법에 있어서의 문화적 발전단계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5. 부부는 딸을 찾았으나 임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딸을 무쇠석함에 가두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6. 무쇠석함은 함덕리 해안에 표착하여 일곱 잠수와 남자에 의해 발견되어 열어보니, 뱀들이 들어 있었다.
7. 이 뱀들을 동서로 던져버리니 일곱 잠수와 남자는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맸다.
8. 점을 치니 신을 박대한 죄임을 알고 <칠성새남> 곳을 하니 신병이 낫고, 부자가 되었다.
9. 뱀들이 도성안에 들어오자 성안 송대정 현감의 부인이 모셔다가 큰 부자가 된다.
10. 칠성신이 누워 있는데, 관원이 지나다가 이 뱀들을 보고 더럽다며 침을 빨자 입병이 났다.
11. 점을 치고 <칠성새남> 곳을 하였더니 병이 나왔다.
12. 어미 뱀과 딸 뱀 일곱은 각기 좌정할 곳을 정하고 떠났다.¹²⁾

사신은 본래 중국의 장나라 장설용의 딸로써 중의 자식을 임신하고 무쇠석함에 쫓겨나 표류 끝에 함덕리의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마침 해녀들이 발견하고 석함을 열어보니 뱀이 여덟 마리가 나왔다. 장설용의 딸이 일곱 마리의 뱀을 놓고 뱀으로 변신한 것이다. 석함을 발견한 해녀들이 이 뱀들을 조상신으로 모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후 이 뱀들은 제주시 송씨 집안의 조상이 되어 집안을 번성시키고 마지막에는 각각 자기가 좌정할 곳을 찾아 갔다. 어미뱀은 관국방을 차지하고, 1녀는 사령방을, 2녀는 마을 본향을, 3녀는 뒷할망을, 4녀는 신목을, 5녀는 창고를, 6녀는 집의 처마를, 7녀는 돌담울타리를 차지하였다. 일곱딸과 어머니 蛇神 가운데 막내딸이 밧칠성이 되고 어머니가 안칠성이 되며, 밧칠성은 집 뒤안 공지에 모셔져 곡식의 풍요를 맡고 안칠성은 고평(곳간)을 차지하여 부의 수호신으로 집집마다 모셔진다.¹³⁾

蛇神이 일가 및 일족의 수호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는 조천리 안씨

12)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419~430.

1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에서 사신을 부의 축적과 생업의 수호신적인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집 수호신과 선홀리 안씨집의 수호신에서 찾을 수 있다. 풍랑을 맞았으나 뱀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고, 그 뱀을 모심으로 부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귀뚫은 배엎〉에서는 수산리 여인이 시흥리에서 조 서말을 빌려오면서 함께 따라온 뱀을 치마폭에 싸서 고팡에 모셨더니 집안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면에 시흥리 부자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뱀을 모셔야 재화를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그 영혼이 뱀을 갖다 주고 그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는 〈양돈어네 조상〉¹⁴⁾에서도 사신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뱀이야기〉¹⁵⁾에는 육지에서 곡식을 싣고 제주로 오던 배가 관탈섬 근처에서 풍랑으로 침몰 위기에 놓였으나 그 위기를 넘기고 제주에 도착해 보니 뱀이 떼지어 물이 배에 스며드는 구멍을 막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구정승과 뱀아들〉¹⁶⁾, 〈구렁이가 된 막내〉¹⁷⁾, 〈뱀으로 환생한 박씨〉¹⁸⁾ 등에서도 인간의 운명과 재화의 수호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신설화의 양상을 볼 수 있다.¹⁹⁾

14) 현용준·김영돈, 『韓國口碑文學大系』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240.

15)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p.423.

16)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위의 책, p.287.

17)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위의 책, p.154.

18)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위의 책, p.824.

19) 인간의 운명과 재화의 수호신으로서의 사신의 모습은 현대 소설 〈장마〉에도 계승되고 있다. 이 작품은 1979년 유현목 감독에 의해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민족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한 것은 민족 전통적 정서인, '뱀'으로 상징된 무속 신앙이다. 곧 민족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 고유한 보편 정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두 할머니는 아들을 잃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할머니의 죽은 아들(관찰자인 나의 '삼촌') 대신 나타난 것은 커다란 뱀이었고, 할머니는 기절한다. 그때 뱀을 삼촌의 현신(現身)으로 생각한 외할머니가 잘 수습하여 무사히 내보낸다. 외할머니가 뱀과 대화하는 데서 뱀은 기괴와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할머니는 뱀을 달래면서 나무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할머니에게 "염려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하시나 사분대 터주 노릇을 이 하고 있을 것이요."라고 한 말을 통해서 보면 뱀은 한 집안의 재산과 풍요를 지켜주는 존재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뱀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가 낫는 이야기는 <토산뱀>²⁰⁾에서 나타나는 데, 감산리의 신랑이 토산리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함께 따라 온 뱀을 항아리에 넣어 땅 속에 묻어 버리자 토산리에서는 앓는 사람들이 생긴다. 굶을 하고 토산리에서 그 뱀을 찾아 가자 모두 병이 낫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蛇神과 인간의 결합이 나타나는 '아래자' 형과 같은 모습은 혈통의 강화, 즉 결과에 대한 필연성을 부과하고 강조하기 위해 신혼 제의에 유사한 양상을 결구시킨 것으로 되기도 한다.²¹⁾

(3) 蛇神설화에 나타난 空間構造

다음 자료에서는 사신이 좌정하게 되는 내력을 통해 사신설화의 공간 구조를 살펴 볼 수 있다.

㉠ 소천국이 열여덟 섬 갈 수 있는 넓이의 밭에 점심을 차려놓고 밭을 갈고 있었다. 때마침 중이 시장하여 밭가는 소천국 밥이나 좀 주면 먹고 가겠노라고 하였다. 점심때가 되어 소천국은 밭갈던 소와 남의 소를 새비나무 썩꼬치로 고기를 꿰어 구워서 다 먹었다.

소가 없어서 쟁기의 손잡이를 배에 대고 밭을 모두 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사실을 안 백주또는 노발대발하여 살림을 나누기로 한다. 그래서 백주또는 당오름에, 소천국은 알손당(下松堂)에 좌정하게 된다. 백주또는 여섯째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로 일이 자꾸 안된다고 하여 무쇠상자에 아이를 넣고 자물쇠를 채워서 동해바다로 띄워버렸다.

무쇠 상자는 파도에 떠밀려 다니다가 용궁에 들어가 산호수 윗 가지에 걸렸다. 용왕은 큰딸과 둘째 딸을 시켜서 상자를 열도록 했으나 끄떡도 하지 않았다. 작은 딸은 수월하게 열었다. 용왕은 마음에 들어 첫째와 둘째와 혼인을 시키려 하나, 결국 셋째와 혼인하게 된다. 아들은 식성이 좋아 용왕국의 창고는 자꾸 비어간다. 용왕은 소천국의 아들과 공주를 무쇠상자에 넣고 내보낸다.

20)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앞의 책, p.479.

21) 박종성,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아들과 공주는 강남 천자국에 가서 무공을 세운 덕에 제주도를 차지하게 된다. 태자를 본 부모는 도망쳐 버린다. 그래서 태자는 한라산, 태역장오리, 오백장군, 다리콧으로, 돌다리, 김녕으로 내려왔다. 다시 좌정지를 찾아 바닷가로 갔다가 괴뇌기 굴 속으로 들어가 좌정한다. 태자의 제에는 소는 부담이 되니 돼지를 잡아 오라고 해서 '뚫제' [豚祭]라고 불러진다.²¹⁾

㉠ 경북 영천에서 온 李衡祥목사가 구좌면 김녕 사굴을 죽인 후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일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 이튿날 이형상 목사는 배 잘탄다는 김동지와 박동지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배가 돌아오는 도중 배의 밑바닥이 터져서 물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배의 깃봉으로 큰 구멍이가 내려와서 그 구멍터진 배 밑바닥을 막았다.

蛇神 숭배는 뱀에 대한 공포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하는데, 사신 신앙이 오랫동안 불교와 교류하면서 마침내 뱀이 불교를 지키는 護敎者로 되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왕이나 용신은 뱀과 신이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불법을 수호한다. 용궁은 물밑에 존재한다. 그러나 ㉠에서 보면 물에 흘러 가다가 도착하게 된 수평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용궁이 현실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현실과 다른 세계가 수평선상에 놓이는 예는 <이공본풀이>에서의 서천꽃밭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용왕의 딸과 소천국의 아들의 결혼은 서로가 同種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신신앙이 龍神신앙의 변이형태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신설화에는 뱀과 그 모양이라든지, 속성의 유사성을 통하여 용, 지렁이, 두꺼비, 지네 등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확대될 수 있기도 하다. 제주도에는 예로부터 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가까이 있으나 외경이 대상인 뱀을 신격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용은 지상적·천상적·용궁계의 용으로 나눌 수 있는

22) 진성기, <태자 괴뇌깃도>,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p.69~74.

데,²³⁾ ㉠에서는 지상적, 용궁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에서는 수직적 하강을 하는 천상적 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소설적 변이

〈춘향전〉, 〈배비장전〉, 〈옹고집전〉을 비롯하여 많은 고소설²⁴⁾이 설화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소설에서도 설화를 개작·변용하여 작품화하는 일은 흔하다.

일반적으로 고전설화를 소설화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옛날 설화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와 무대를 옛날 그대로 두고 재구(再構)하는 방법이다. 方基煥의 「귀」, 黃順元의 「차라리 내 목을」이 이런 예에 속한다. 둘째는 고전 세계와 현재와의 영합(迎合)이다. 鄭漢淑의 「禮成江曲」, 「海鄕祠의 慶事」가 그 예이다. 이것은 옛 설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던가, 아니면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고전적 소재가 완전히 현대적으로 융화되어 버리게 하는 방법이다.²⁵⁾

제주와 인연을 맺고 있는 작가 현길언의 소설에는 제주의 蛇神설화를 소재로 한 「김녕사굴 본풀이」와 「광정당기」가 있다. 이 소설들은 위의

23) 曹喜雄, 『說話學綱要』, 새문사, 1989.

24) 김현선은 〈칠성본풀이〉와 유사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고소설로 〈장풍운전〉(〈張風雲傳〉은 〈張豐雲傳〉, 〈楊風雲傳〉, 〈楊風傳〉, 〈梁風傳〉, 〈양풍운전〉, 〈양풍운전〉 등의 이본이 있다.)을 들고 있다. 약혼자인 장풍운과 경패가 시련 끝에 결합하는 이야기로, 趙聖期的 작품이라는 설(조희웅, 『고전소설 작품연구 총람』, 집문당, 2000.에서 재인용)도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김연호, 『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에 관한 연구』 등에서 언급되어 있음.) 이야기 속에서 경패의 삶은 생모와 이별하고 계모와 지내며 수난을 겪는다. 장풍운과의 혼인 후에도 여러 가지 수난이 따르는데, 이러한 점에서 〈사신칠성본풀이〉에서 딸이 겪는 수난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25) 장덕순, 『한국설화문화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pp. 310~311.

방법 중에서 모두 첫째 방법에 해당한다. 우선 바탕이 되는 설화들의 모습을 살펴본다.

蛇神과 인간은 갈등과 화합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김녕뱀굴> 설화는 <지하국대적제치>형의 대표적인 설화로 사신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옛날 구좌면 김녕리 동굴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다.
2. 뱀이 주민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므로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쳐 굿을 했다.
3. 중종 때 서련이 판관으로 부임하여 굿판에 나타난 뱀을 살해한다.
4. 무당이 서련판관에게 화를 피하여 달아나게 하고 무슨일이 있어도 뒤돌아 보지 말라고 당부한다.
5. 피비가 쏟아진다는 군사의 외침에 본능적으로 뒤돌아 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다.²⁶⁾

단락 1, 2를 보면 처음에는 蛇神과 인간의 화합의 상황으로 蛇神에게 인간을 바치되, 인간의 죽음을 통해 집단적 풍요와 번영을 도모하는 제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단락 3에서는 새로운 관리의 등장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蛇神과의 대결이 나타난다. 蛇神과 인간의 화합을 통해서 집단의 풍요가 보장되었던 蛇神 제의(굿)가, 인간의 죽음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삶의 중심에 인간이 자리잡음으로 해서, 먹는 자로서의 蛇神은 부정적 가치를 지니면서 인간에 의해 퇴치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를 근간으로 한 현길언의 「김녕사굴 본풀이」의 내용을 살펴본다.²⁷⁾

1. 김녕 본향당의 무당이 마을 집집마다 모이는 재물로 본향당신이 모셔진 굴 앞에서 굿을 한다.

26)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719.

27) 玄吉彦, 『龍馬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4, pp.93~117.

2. 변방의 수비를 튼튼히 하여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조정의 의도로 부임 해온 젊은 관관은
3. 관관이 무당들을 잡아들이고 뱀을 퇴치할 생각으로 굿을 진행시키려고 한다.
4. 굿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관이 신당을 불태우고 심방들을 포박한다.
5. 관관이 노루 사냥을 나갔다가 낙상하여 죽었다. 김녕 본향당 할머니이 관관을 말에서 떨어뜨려 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단락 2에서 무당이 굿을 할 때에는 <사신철성 본풀이>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현전하는 여러 설화를 모두 취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이에 대하여 김영화는 “뱀이 나온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으로, 전설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민중들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소문을 검증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메시지이다. 현대인에게 뱀의 출현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인들은 뱀의 출현을 왜 믿었는가 하는 물음에 ‘민중들의 어리석음’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²⁸⁾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뱀이 비록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매년 정해진 때에 마을 사람들로 부터 정성드려 마련한 제사를 받는다는 것으로 봐서, 마을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는 당신임에 틀림없다. 관원의 입장에서는 이 신에 대한 제주민들의 신앙 행위가 민폐로 생각되어 그를 퇴치한다. 이 설화에서도 본토에서 혼한 용기 있는 관원이나 지방 수령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귀를 퇴치해서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했다는 식의 일종의 공안 설화와 같은 유형이다. 그러나 광정당 설화처럼 이 설화에서도 끝에는 사태는 역전된다. 소설의 서두에 “육지부에도 음사(淫祀)나 요귀를 용기 있는 관원들이 퇴치하여 백성들의 안위를 도모하였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퇴치한 자가 요귀의 흉험에 의하여 패배 몰락하는 경우가 이

28)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 출판부, 2001, p.57.

교수는 들어 보질 못했다.”²⁹⁾라고 하였다. 즉 요귀의 퇴치자인 관원이 蛇神에게 복수를 당하고 패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堂神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향유했다는 점에서 반공안 설화라 할 수 있다.³⁰⁾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는 다음과 같다.

1. 이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에 이르러 下馬하지 않아 말의 다리가 부러졌다.
2. 굶을 하는데서 뱀이 나오자 죽여 태우자 장평이 되었다.
3. 어느날 이목사의 꿈에 골충귀신이 나타나 담이나 쌓아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주었다. 그리고 골충귀신의 하라는대로 해서 무사히 육지로 갔다.
4.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 형제가 죽어 있었다.³¹⁾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는 李衡詳 목사의 신당 철폐와 관련된 설화이다. 이런 모습은 〈광정당 말무덤〉³²⁾에도 나타나는데 제주목사 李衡詳이 蛇神을 모시는 광정당을 철폐하려다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다리를 절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여 무당을 불러 굶을 하였더니 이무기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전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공안적 성격을 띤 설화이다. 백성을 현혹시키는 당신을 철폐한 일이라든지, 골충 신령의 청을 받아주어 묘를 치산한 것은 한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그 결과 악신의 흉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구조는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구조이다. 물론 이 경우 단순히 폐종이 된 묘를 치산해줬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일이 바로 절집과 신당을 철폐하는 일과 상대되도록 설정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유다르다. 그런데,

29) 현길인, 앞의 책, p.94.

30) 현길인, 『說話와 濟州文學』, 『耽羅文化』 第15號,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85, p.235.

31) 현용준·김영돈,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韓國口碑文學大系』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703.

32)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p.270.

이목사가 화를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당신의 복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결구가 특이하다. 그것이 제주설화다운 점이다.³³⁾

이 설화를 소설화한 것은 <광정당기>이다.³⁴⁾

1. 매달 초이레마다 광정당에서는 당제가 벌어지고 굿판을 겸한 굿놀이가 벌어진다. 이 대정 고을 근방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은 광정당에 모여 이런 일을 치러야 가슴 속에 서려 있는 온갖 것을 씻어 낼 수 있다.
2. 새로운 목사가 당을 부수고 무당들에게 굿을 못 하도록 영을 내린다.
3. 목사는 신당을 철폐하고, 관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제주 백성 대회'를 열어 임금의 윤허 사항을 발표한다. 임금이 베푼 은전의 대가로 신당을 부수는 일을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원망이 시작된다.
4. 제주의 당들을 차례로 철폐하는데, 목사는 광정당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소문을 듣고 광정당으로 행차하게 된다.
5. 목사는 광정당 앞을 지날 때에는 그 누구라도 하마(下馬)해야 화를 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내리지 않고 가려고 하나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6. 목사는 광정당의 귀신을 나오도록 굿을 할 것을 명한다. 굿이 행해지고 당은 철폐된다.
7. 목사는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고 육지로 쫓겨나듯 떠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세 아들이 죽어 있었다는 소문이 퍼진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나고, 쓰러진 팽나무 밑 등지에 단을 쌓아 매달 정성껏 제물을 바쳤다.

단락 7에서는 목사에 의해 광정당 팽나무가 쓰러지고 무당들이 잡혀 간 날부터 기운이 없고 어둑어둑한 얼굴로 다니던 마을 사람들이 “생기가 나고 하는 일에 힘이 붙어 흥얼흥얼 신이 나는 듯 싱글벙글하였고, 그들은 다시 쓰러진 팽나무 밑등지에 단을 쌓아 매달 초이레마다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제물을 만들어 드나들기 시작하였다.”³⁵⁾ 이것으로 제주의 무속신앙은 단순한 풍습으로서의 무속의 차원을 넘어 신앙으로서의

33) 玄吉彦, 앞의 글, p.234~235.

34) 玄吉彦, 『우리들의 스승님』, 문학과학사, 1985, pp.54~77.

35) 玄吉彦, 위의 책, p.77.

종교적 성격이 강하였기에 그만큼 그것은 제주의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는 데 탄탄한 기조로서 자리잡혀 있음을 의미한다.³⁶⁾ 이에 따라 무속에 행해지는 제의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의에서 구연되는 본풀이가 의례적인 모습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 형태의 설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설화는 조선조 때의 중앙의 지방에 대한 완전한 지배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이야기는 '市浦拜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市浦拜恩'은 1702년(숙종 28년) 12월 20일 실시되었다. 鄕品文武 300여명이 일부는 관덕정 앞에서, 또 다른 일부는 健入浦에서 북쪽을 향해 즉, 조정에 배례하는 모습과 제주의 각 마을에 있었던 신당의 일부가 불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그림은 아마 이형상이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제주의 신당을 불태우고 사찰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당시 도민들의 정서는 그와 반대의 상황이었겠지만, 이형상 목사는 신당 철폐 자체를 커다란 업적으로 여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불타 없어진 신당은 129 곳에 이르며, 훼손된 사찰은 5곳이다. 그리고 巫覡 285명으로 하여금 농업을 본업으로 삼도록 조치하였다.³⁷⁾

이러한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와 <김녕뱀굴> 두 가지 유형의 설화는 제주인들의 중앙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는 반관적 의식이 표출된 것이며, 또한 변방에 거주하여 주변인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화는 비슷한 모티브를 가진 본토의 설화와 그 내용과 구조가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설화는 주변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서의 중앙에 대한 반지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36) 玄吉彦, 앞의 글, p.234.

37) (壬午十二月二十日 鄕品文武上下并三百餘人 燒火神堂處 破毀寺刹五處 巫覡歸農二百八十五名)(『탐라순력도』)

『탐라순력도』, 제주시, 2002(제4판), p.96-97.

4.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의 사신설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와 양상을 검토하고, 아울러 현대소설에 개작·변이되어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았다.

사신설화의 연구는 이기옥의 연구와 같이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등 인접학문의 도움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대·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해남도(중국), 오키나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등과의 비교를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자료 수집 및 보완이 계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신칠성 본풀이〉형의 설화에서는 뱀이 재화 부귀와 직접 관련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뱀은 조상신이고, 농경·어로와 관련된 풍요의 신앙적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형과 〈김녕뱀굴〉형의 설화에서 뱀에의 기피와 숭배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온 관원들은 표면상으로는 중앙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런 설화들이 중앙의 지방에 대한 완전한 지배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사신설화는 현대소설에서도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소설에의 변이 양상 등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것은 후고에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도 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김영돈·현용준·현길언, 『濟州說話集成(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현용준·김영돈,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981, 1983.

- _____,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 _____, 『제주도 傳説』, 서문당, 1976.
- 玄吉彦, 『龍馬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4.
- _____, 『우리들의 스승님』, 문학과지성사, 1985.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 출판부, 2000(개정·증보판).
- 김현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관련양상 재론』, 『古小說史의 諸問題』, 성오 소
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3.
- 문무병, 『濟州島 蛇神信仰 研究』, 『濟州島言語民俗論叢』, 玄容駿博士華甲紀念
論叢刊行委員會, 1992.
- 박종성,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 _____,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 도서출판 월인, 2002.
- 백남극·심재한, 『뱀』, 지성사, 1999.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_____, 『동북아시아 무가의 비교 연구』, 제3회 동아시아 국제학술 심포지움
논문집-한국학과 생활문화, 1996. 9. 17.
-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제6집, 濟州島研究會, 1989.
- 이지영, 『한국 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1997.
- 이창현, 『장풍운전』, 『韓國古典小說作品論』, 집문당, 1990.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 曹喜雄, 『說話學綱要』, 새문사, 1989.
- 秦聖麒, 『濟州道の 뱀信仰』,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 _____, 『南國의 巫俗』, 螢雪出版社, 1987.
- 탁명환, 『濟州 蛇神信仰에 對한 小考』,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
類學會, 1978.
- 玄吉彦, 『說話와 濟州文學』,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 _____, 『제주설화와 그 주변성』,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_____, 『玄丞桓,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 耽
羅文化研究所, 1985.

<부록>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수록된 뱀 관련 설화

大蛇遇治	대마(大蛇)의 죽임(治)에 관한 설화(口碑文學)
<김녕사굴>, 9-1, p.39.	서관관이 뱀을 죽이나 하인이 말을 걸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죽게 되었다.
<김녕 뱀굴>, 9-1, p.191.	김녕뱀굴의 뱀을 죽인 영천 목사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자 대풍이 불어 못가는데, 골충귀신들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다.
<김녕 뱀굴>, 9-2, p.637.	사람이 죽으면 뱀굴에 갖다 놓으면 뱀이 먹었는데 목사가 뱀을 폭파시켜 죽였다.
<김녕 뱀굴>, 9-2, p.719.	서련판관이 뱀을 죽이고 그 보복으로 죽었다.
<광정당과 이목사>, 9-3, p.734.	이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에 이르러 下馬하지 않아 말의 다리가 부러졌다. 굶을 하는데서 뱀이 나오자 죽여 태우자 장평이 되었다. 어느날 이목사의 꿈에 골충귀신이 나타나 담이나 쌓아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주었다. 그리고 골충귀신의 하라는대로 해서 무사히 육지로 갔는데 아들 형제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당오백 절오백을 없애 버렸다. 자식 생각을 하다가 닭깃으로 목을 찢러 “늑들이 암만 물어봐도 나만큼 속이 아프진 않다”고 하였다.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9-3, p.703	광정당에서 굶을 하는데 이형상 목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지 않아 그 말이 죽었고 굶을 하는데 뱀이 나오면 태워버리려는데 그 영혼이 평이 되어 날아든다고 해서 '새당'이라고 하였다.
<영찰목사(榮察牧使)>, 9-3, p.100.	영찰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의 근처에 이르러 부하들이 하마하라는 말을 했는데 어기고 가다 말이 발이 저려 건지를 못하였다. 영찰목사는 뱀을 죽였고, 골충들을 잘 수리해 주고 그 골충귀신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당신(堂神)과 허좌수(許座首)>, 9-3, p.1120.	본향당의 당신(大蛇)이 허좌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복수하였다.
<임경업 장군>, 9-2, p.225.	임경업 장군이 유람하다가 한해에 처녀 하나를 잡아먹는 뱀을 처녀 대신 가서 죽였다.

堂 神	내 용
〈김녕 궐내깃당〉, 9-1, p.146.	본풀이의 내용과 유사
〈사신(蛇神) (1)〉, 9-3, p.1115.	표선면 토산리 여드랫당 당신을 위하여 안덕면 창천리 강 씨택에서 굿을 했다.
〈사신(蛇神) (2)〉, 9-3, p.1118.	사신을 위해 표선면 가시리 강씨택에서 굿을 했다.
〈안할망과 광주할망〉, 9-3, p.487.	안할망은 동헌 안에 모시는 당신이고 광주 할망은 영험이 있는 당신이다.

堂 神	내 용
〈메밥의 머리털은 뱀〉, 9-2, p.260.	제사 때 메밥사에 머리털은 영혼에게 뱀으로 보이므로, 진 라도 부근에서는 제사 3일전부터 입막고 머리 빗어 짜멘 다고 한다.
〈양돈어네 조상〉, 9-2, p. 240.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그 영혼이 뱀을 갖다 주고 그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